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4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



1st

증기기관과
기계화

2nd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

3rd

컴퓨터 정보화
자동 생산

4th

산업 및 기술 간
융합 활성화

- 전시자료 :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추천도서 80종
- 전시기간 : 5. 1 (월) ~ 6. 30 (금)
- 전시장소 : 제 1 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
- 관련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309)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보 도서관에서 만나보세요.
도서관과 함께하는 기획전시회~



똑똑,
문을 열다

효원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도서관소식지**

CONTENTS

- 04** **도서관 200% 이용하기** 외국학술지원센터(FRIC) 활용법
- 08** **책, 감동을 나누다** 책 읽는 기쁨을 함께 해요
- 10** **교수의 서재** 나에게 서재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
- 12** **아름다운 인터뷰** 책에서 치유의 길을 발견하다
- 14** **책과 문화** 책과 함께 만나는 뮤지컬
- 16** **통계로 보는 도서관** 효원인의 희망도서 이모저모
- 18** **즐기는 책세상** 여름 그리고 방학을 함께 보내면 좋을 책
- 20** **문화공감** 봄날의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
도서관 이용을 앱으로 편리하게
- 22** **시선집중**
- 23**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상금 **발행일** 2017. 6. 26.
편집 김승아, 박선화, 최민영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whitemy37@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블로그(<http://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구정문 앞 무지개문 옆에 살구나무가 있다는걸 알고 계시나요?
 벚꽃과 생김새가 비슷해서, 아마 모른 채 지나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매년 봄, 매화꽃이 질 때쯤 피는 이 살구꽃을 통해서 진짜 봄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봄을 기다리시나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도서관에서는 새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새로운 계절과 다양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도서관의 무료 복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활용법

Use the Free copy services of the Library 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Use Guide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를 통해 외국학술지 977종에 대해 무료로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학술지지원센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원하여 국내 보유 해외학술정보 공동활용 기반 구축사업으로서, 10개 대학이 각 주제 분야의 외국학술지를 구독·보존하여 대학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센터 자료의 원문복사 및 우편요금 비용 전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기술과학분야(건축·토목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조선·우주항공공학, 화학공학)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로서 관련 외국학술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본교 이용자뿐만 아니라 외부 이용자들도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rovides free copy service for 977 foreign journals through the 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FRIC). The 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is the academic information center for each subject that is designated and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10 universities across the nation have operated the FRIC, providing anyone with copy service of foreign journals completely free of charge.

The PNU Library was designated to operate the FRIC focused o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science (architectural engineering, civi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material engineering, shipbuilding engineering, aerospace engineering, and chemical engineering). PNU users as well as outsider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이용안내 | USE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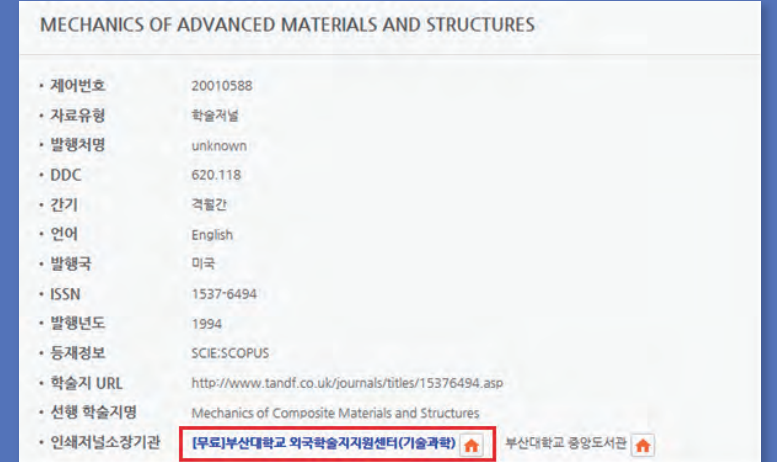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이용

US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ISS)

click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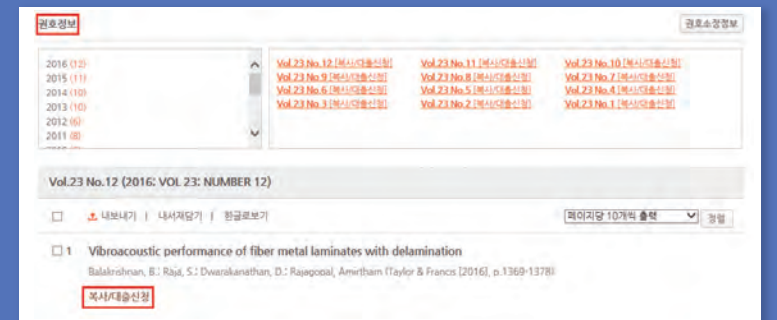
-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 접속 및 로그인
- 2 자료(논문 또는 학술지) 검색
- 3 검색결과 화면에서 [무료]부산대학교 외국학술지 지원센터(기술과학) 확인

- 1 Connect to RISS(www.riss.kr) and Login
- 2 Search(Article or Journal)
- 3 Check [FREE] PNU FRIC(technology and science) on the search results



click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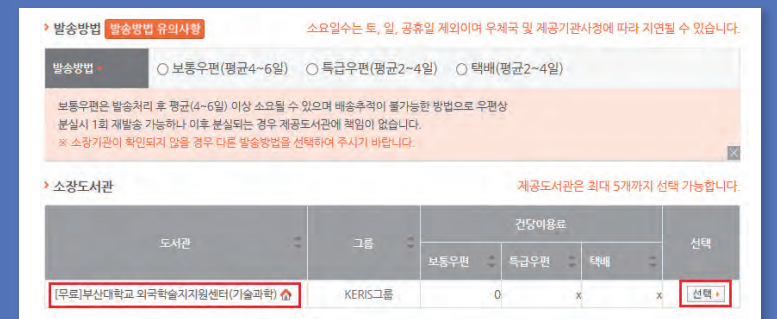
- 4 권호 정보 확인 후 원하는 자료의 복사/대출 신청 클릭
- 4 Check Vol./No. and Click on the Copy / Loan



click
03

- 5 서지정보 확인 후 발송방법 선택하고 소장도서관 리스트 중 [무료] 부산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기술과학) 우측의 선택 클릭하여 신청
- 6 RISS - MyRISS - 구매/신청 현황에서 처리현황 조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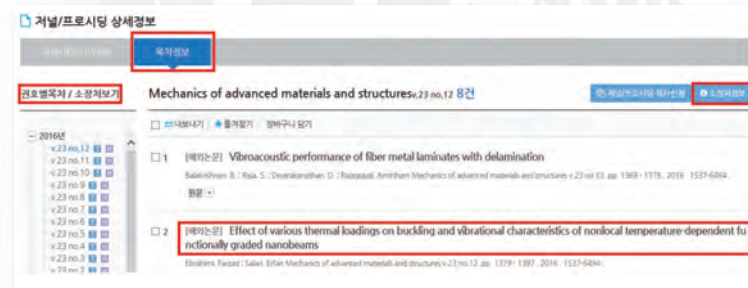
- 5 Check Bibliographic data, Choose Delivery method, Click [FREE] PNU FRIC (technology and science) of list of Library
- 6 Check Processing status at RISS - MyRIS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이용 USE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click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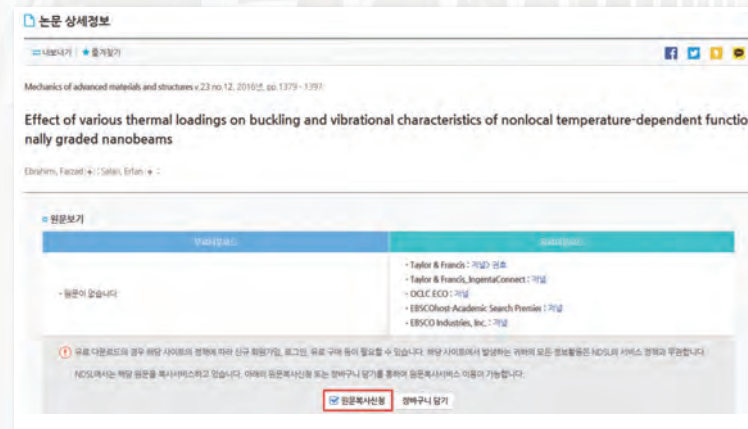
- 1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www.ndsl.kr) 접속 및 로그인
- 2 저널명으로 검색 후 저널/프로시딩 클릭
- 3 저널명 클릭하여 상세정보로 이동 → 목차정보 선택 → 소장처정보 선택하여 부산대-외국학술지 지원센터 확인 후 논문명 클릭



- 1 Connect to NDSL(www.ndsl.kr) and Login
- 2 Search by Journal, Click Journal/Proceeding
- 3 Click Journal and check more information → Click Contents Information → Click Holding Information, Check PNU-FRIC and Click arti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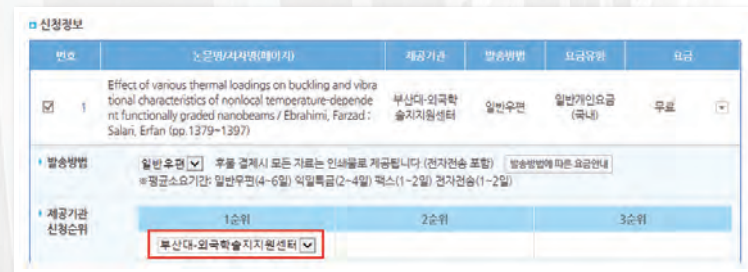
click
02

- 4 논문명 하단의 원문복사신청 클릭
- 4 Click Copy Application under the Article



click
03

- 5 신청정보 → 제공기관 신청순위에서 부산대-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선택 후 신청
- 5 Application Information → Check PNU-FRIC and apply for materials



E-mail / Fax 신청 USE E-mail / Fax

click
01

- 1 부산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fric.pusan.ac.kr) 접속
- 2 자료검색 후 소장정보 확인
- 3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E-mail (fric@pusan.ac.kr) 또는 Fax(051-510-3103) 로 신청



- 1 Connet to PNU FRIC web page (http://fric.pusan.ac.kr)
- 2 Search the materials and Check holding information
- 3 Download the application and fill out, send to E-mail(fric@pusan.ac.kr) or Fax(051-510-3103)

직접 방문 신청 Visit the Center

click
02

- 1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 4층 외국학술지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2 센터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1 Visit the FRIC on the 4th floor of the PNU Library 1, and apply
- 2 FRIC OPEN: Mon~Fri, 09:00~18:00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부산대학교 소속 구성원에 한함) USE PNU webpage(PNU members only)

click
03

- 1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usan.ac.kr) 접속 및 로그인
- 2 저널 검색 후 소장정보 확인
- 3 E-mail/Fax/직접방문 신청
- 1 Connect to PNU webpage(https://lib.pusan.ac.kr) and Login
- 2 Search Journal, Check holding information
- 3 Use E-mail/Fax, Visit th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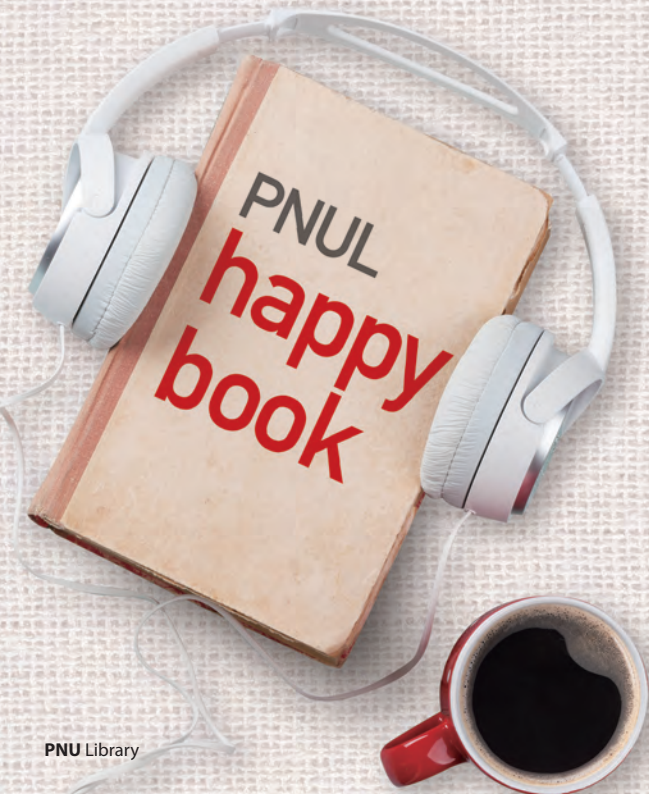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이용 관련 문의 | PNU FRIC Q&A

위치 | 부산대학교 제1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전화 | 051-510-3102
팩스 | 051-510-3103
이메일 | fric@pusan.ac.kr

Location | 4th floor(Science & Engineering Library) of the PNU Library 1
Tel | 051-510-3102
Fax | 051-510-3103
E-mail | fric@pusan.ac.kr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통해 책 읽는 기쁨을 함께 해요

책읽기 좋은 계절, 봄입니다. 효원인 추천도서를 통해 책 읽는 기쁨을 함께 하는 건 어떨까요?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해 2016년도 하반기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도서 36권을 소개합니다.



총류



“인문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2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과 거리가 멀고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으면서 살아간다면, 인간이 갖추고 고민해봐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대학생, 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영준**(문헌정보학과)

01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 박홍순 | 한빛비즈 | 2014 **김영준**(문헌정보학과)

철학



이 책에서는 자기 긍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사랑을 주고 토닥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단점, 결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있어서도 더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더라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관계를 잘 맺어나갈 수 있게 된다. **허진주**(문헌정보학과)

02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 브래네 브라운(사현정 옮김) | 북하이브 | 2012 **김건일**(지질환경학과)
 03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함 허진주 | 비전과 리더쉽 | 2007 **허진주**(문헌정보학과)
 04 죽음이란 무엇인가 셀리 케이건 | 엘도라도 | 2012 **김영준**(문헌정보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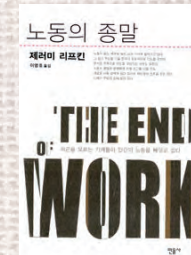
종교



마음을 다스리기까지 삶에는 슬픔, 아픔, 고통, 불행, 두려움 등 모든 것이 밀려온다. 감정이라는 이름의 코끼리가 우리의 삶을 짓밟아 놓고 망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코끼리를 길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코끼리 108마리를 다스리는 이야기이다. **임현희**(지질환경학과)

05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 | 연금술사 | 2013 **임현희**(지질환경학과)
 06 아, 김수환 추기경 1-2 이충렬 | 감성사 | 2016 **최성현**(문헌정보학과)

사회과학



지금 세계경제는 극심한 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반세계화 운동이 나오는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되거나 브렉시트 등의 사태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현상의 본질은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가에서 제도를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 책은 24년 전인 1993년도에 쓰여진 책이다. 저자의 방대한 조사능력과 통찰력에 놀라울 뿐이다. **김희주**(동물생명자원과학과)

07 노동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 민음사 | 1993 **김희주**(동물생명자원과학과)
 08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 | 율유문화사 | 2015 **백동현**(독어독문학과)
 09 숲에서 자본주의를 꺼낸다 모타니 고스케, NHK(히로시마 취재팀) | 동아사이 | 2015 **유창휘**(사학과)

예술



예술은 인간 사고방식의 표현이다. 나라마다 사고방식이 다르니 같은 예술 사조나 유행이라도 나라마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를 일본 전통 형식과 조화시켰기에 주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독특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 편이다. 한마디로 말해 너무 동양적이지도, 너무 서양적이지도 않은 미술 작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모두를 한 자리에서 감상하기에 적합한 곳이기도 하다. **백동현**(독어독문학과)

10 아트, 도쿄 박현정, 최재혁 | 북하우스 | 2011 **백동현**(독어독문학과)

자연과학 & 기술과학



광학 영상의 원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담담한 문체로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서 부담이 없었다. 쉽고 간단하면서도 재밌게, 그렇지만 깊이있게 서술한 책이라서 빛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근본적인 원리를 생각함으로써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 사고력과 이해력이 깊어지도록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 어려운 공식 하나 없이 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김수정**(나노응용공학과)

11 빛의 공학 석현정, 최철희, 박용근 | 사이언스북스 | 2013 **김수정**(나노응용공학과)
 12 수학이 불완전한 세상에 대처하는 방법 박형주 | 세종도서 | 2015 **김수정**(나노응용공학과)
 13 닥터스 베른하르트 알브레히트 | 한스미디어 | 2014 **강하람**(pre-한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
 14 한의학 입문 권영규 외 | 부산대학교 출판부 | 2011 **김구원**(pre-한의학전문대학원과정)
 15 마케팅 상상력 사어도어 레빗 | 21세기북스 | 2016 **김수정**(나노응용공학과)

역사



첫 제목의 '역사'란 단어만 봐서는 지루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줄줄줄 나열된 것 같지만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이 책속에는 고려에서 Korea라는 표기가 기원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과정에서 Korea가 나온 건지, 어쩌서 신라나 조선이 아닌 고려에서 우리나라의 로마자 표기가 기원했는지, 덩으로 이 한반도 땅에, 조선에 처음 들어온 서양인의 이야기 등 의외로 다채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김수현**(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16 고려야, 코리아 오인동 | 책과함께 | 2008 **김수현**(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17 수능대신 세계일주 박용 | 상상출판 | 2016 **최성현**(문헌정보학과)

문학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나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정리 되었고 결국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삶은 한 번 뿐이다. 그리고 다음 생은 어떻게 살아야겠다... 라는 결심은 없는 것이다.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우리들, 이 책을 읽고 결심을 하고 바로바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죽음 후의 삶은 없다. 지금의 삶만이 있을 뿐이다. **김구원**(pre-한의학전문대학원과정)

18 나는 농담이다 김중혁 | 민음사 | 2016 **이나희**(식품영양학과)
 19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 창비 | 1999 **정유진**(건설융합부)
 20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기욤 무소 | 밝은세상 | 2007 **김영준**(문헌정보학과)
 21 바이올렛 아워 케이티 로이프 | 갈리온 | 2016 **김구원**(pre-한의학전문대학원과정)
 22 발원 - 요석 그리고 원효 김선우 | 민음사 | 2015 **유창휘**(사학과)
 23 사람 풍경 김형석 | 사람풍경 | 2012 **김건일**(지질환경학과)
 24 새벽 요코짱의 한국살이 타카미 요코 | 짝은책 | 2004 **김수현**(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25 새벽 세시 새벽 세시 | 경향BP | 2016 **김구원**(pre-한의학전문대학원과정)
 26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무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무라카미 하루키 | 민음사 | 2013 **최성현**(문헌정보학과)
 27 스틸 앨리스 리사 제노버 | 세계사 | 2015 **최지원**(경제학과)
 28 맹무새 죽이기 허퍼리 | 열민책들 | 2015 **이명하**(기계공학과)
 29 이성과 감성 제인 오스틴 | 평권클래식코리아 | 2015 **허정애**(식품영양학과)
 30 일출, 지하 일출 김중혁 | 문학동네 | 2012 **남응모**(수학과)
 31 자기앞의 생 로맹 가리 | 문학동네 | 2003 **허정애**(식품영양학과)
 32 젊은 느티나무 강신재 | 문학과지성사 | 2007 **임현희**(지질환경학과)
 33 첫 번째 향로 정아림 | 문학과지성사 | 2015 **유창휘**(사학과)
 34 친애하는 사물들 : 이현승 시집 이현승 | 문학동네 | 2012 **이나희**(식품영양학과)
 35 페르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랜섬릭스 | 풀리북스 | 2011 **최지원**(경제학과)
 36 ZOO 오츠치 | 황매 | 2011 **임현희**(지질환경학과)

양민중 노어노문학과

나에게 서재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

보통 서재는 ‘책을 갖추어 두고 글을 읽거나 쓰는 방’을 말한다. 이런 뜻에서 보면 필자에게 서재는 연구실이다.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영어의 Library를 서재라 번역하면, 서재는 ‘소장 도서’가 된다. 연구실에 애지중지 모아 놓은 서책들이 서재란 이야기다.

서재가 어떤 의미를 갖든지 간에 필자는 몇 해 전 소유목록에서 서재를 지웠다. 연구실은 후속 연구자에게 전해줄 한시적인 공간이니 애시당초 필자에게 소유권이 없었다. 서책들의 절반은 학과 사무실에 기증하였다. 협소한 과사무실 공간에 맞지 않는 책들은 평소 필자가 신세를 졌던 기관에 보냈다. 현재, 연구실에는 ‘읽고 있거나 연구에 꼭 필요한 책들’만 있다. 필자는 ‘세상에서 가장 수지맞는 일이 책을 사서 읽는 것’이라는 말에 여전히 공감하고 있어 아직도 습관적으로 도서를 구매한다. 서재를 지웠는데도 새로운 책이 계속 불어나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책 정리를 할 생각이다.

서재를 비우고 나니 기적이 일어났다. 사방에 책이 가득해도 그다지 눈길을 주지 않았었다. 서재에 책이 많으니 도서관 출입도 그다지 잦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매일 제1도서관 출입을 한다. 도서관이 언덕 위라 걷기운동도 쓸쓸하다. 학교 정문 옆 NC백화점에 있는 서점에도 단골이 되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음식을 보며 눈요기하듯, 서재가 비어 본능적으로 서점에 간다. 서점에서 신간을 뒤적이다 전공과 무관한 책을 사서 읽는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다. 작가 한강이 맨부커 상을 타기 전인 제작년 가을, 서점에서 한강의 작품을

죄다 읽으면서 곧 일이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신에 작가들의 수작들이 눈에 보였다. 그동안 전공서적 중심으로 책을 가려 읽는 편이었는데, 매일 서점과 도서관에 드나들며 장르를 섭렵하는 취향이 생겼다. 젊었을 때부터 그리하였더라면 소통의 지혜를 더 깊이 하였을 것을..

기적은 공간에서도 느껴졌다. 텅 빈 연구실 바닥에 나무를 깔고 앉은뱅이책상을 놓았다. 가끔 고독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서재가 넓어졌다. 금정산 케이블카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는 고독한 서재는 ‘책 읽고 글쓰기에 최적의 공간’이 되었다. 소유하려던 서재를 버리니 진정한 서재가 돌아온 것이다. 한 때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이 쇠하는 것을 핑계로 공부시간을 줄였다. 당연히 최근 몇 년 사이의 연구 실적도 0%. 그런데 서재를 비운 뒤, 지난 1년 동안 600%. 다시 젊은 연구자가 되어버렸다. 과거의 서재를 비우고 새로운 서재를 만들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생겼으니, 세상사에 달관하는 무소유의 경지에 이르면 어떤 혁명이 일어날까.

모스크바에서 유학하던 청춘시절, 러시아는 큰 혼란을 겪었다.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직을 사임하며 연방이 해체되고 15개의 공화국이 생겼다. 사회주의 경제가 무너지고 그 잔해위에 시장경제를 세웠다. 런던에 유학중이던 30대의 젊은 가이다르가 러시아의 재무장관이 되어 국유재산 사유화와 군수산업 민영화에 급격하게 추진하면서 러시아 경제는 마비되었다. 물가가 치솟고 루블화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며, 중산층 시민들이 적빈의 상태에 내몰렸다.

시절이 하수상하다. 장미대선의 소란이 가셨으나 나라 안팎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언제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나마는 작금의 형국은 태풍이 오기 전의 고요함을 닮았다. 이럴 때면 서재에서 두문불출 서책과 벗하며 세상사를 잊는 것도 지혜다.

러시아인들은 집에 있던 물건들을 내다 팔았다. 책들도. 당시 달러의 힘을 가진 외국인 누구는 모스크바에서 아파트를 샀고, 누구는 작은 공장이나 오피스를 샀다. 그림이나 골동품을 사서 국경을 넘던 사람들이 경을 쳤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렸다.

당시 필자는 책을 샀다. 소비에트 과학 아카데미에서 출판한 양장본이 한권에 100원하던 시절이었다. 주말이면 모스크바 중심의 명소인 아르바트 거리에 가서 여행가방 가득 책을 샀다. 당시 유학생들은 이런 취미를 ‘북 헌팅’이라 불렀다. 필자는 유학생 대표 북 헌터였고, 서재는 점차 불어나서 아파트에 책을 둘 공간이 부족했다. 학위를 마치고 귀국할 때 책이 짐이 되었다. 아쉽지만 절반은 러시아에서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다. 절반은 컨테이너에 실려 한국 땅을 밟았다가 얼마 전 필자의 연구실에서 아웃된 서재다.

필자는 러시아문학과 인류학, 민속학에 관련된 원서들을 컨테이너 분량으로 사서 모았다. 소장품으로 간직해왔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은 책 속의 지혜와 내용이지 소장품이 아니었다. 책을 사서 소장하는 것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다. 내용도 중하지만 인테리어로서 가치도 얼마든지 있고, 소장가치도 적지 않다. 지금도 꾸준히 책을 산다. 하지만 이제 서재를 가꾸고 불러나가기 보다는 내용을 읽고, 지혜를 빌리는 일의 가치가 중하게 여겨진다. 필자는 문학 책에서 과학 서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읽는 즐거움에 뒤늦게 눈을 떴다. 이제 필자의 서재는 ‘현재 읽는 책들로 구성’되어있으며, 현재



연구실에 있는 책들도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것이다. 필자의 서재는 필자와 책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공간이다.

가끔 ‘독서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혹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가’하는 질문을 받는다. 들으면 웃겠지만 필자는 소설이 아닌 ‘선데이서울’과 같은 3류 주간지를 읽으며 문학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병정말년, 부대원들이 가진 주간지를 모두 모았다. 천권은 즉시 필한 주간지를 아주 짧은 기간에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장르 글쓰기가 무엇인지 이해했다. 이후 주간지에 식상하면서 본격 소설 읽기를 시작했다. 이런 방법은 누구에게나 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정시간 동안

상당한 분량의 책읽기’는 젊은이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마법을 가졌다.

필자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레프 톨스토이가 있다. 어려서부터 작가가 될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았다. 군인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군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모스크바 인근의 야스나야 팔라나 저택에 살며 농민들에게 글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고 살면서, 초인적인 분량의 독서를 한다. 책읽기와 봉사, 노동을 하면서 톨스토이의 삶이 바뀌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쓴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던지는 3개의 질문(‘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모르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깊이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 상당한 분량의 독서를 통해 쌓이기 시작하였다. 톨스토이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을 두고 노벨상의 수준을 의심하는 지성인들이 많을 정도로 지구 대표 작가가 되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고’, ‘인간이 모르는 것은 바로 코앞의 미래’라 말한다. 세 번째 질문의 답이 궁금하신가? 제1도서관 2층 서재에 답이 있다. 필자는 ‘나의 서재공간을 꾸며서 책들을 불리는 욕망’을 지웠다. 그리고 드넓은 도서관 2층이 모두 ‘나의 서재’가 되었다.

[교수의 서재]에서 교수님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교수의 서재]는 분야별(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등) 우리학교 교수님들의 서재를 통해 그 분의 독서법과 독서세계를 경험해보고, 서가에 꽂힌 책도 함께 만나보고자 기획된 코너입니다. 교수님에게 서재는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교수님의 독서와 인생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교수의 서재]에 칼럼을 써주신 교수님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함께 드립니다.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 (A4 2장 정도) 문의 도서관 기획홍보팀 최민영(전화. 051-510-1810, 이메일. whitery37@pusan.ac.kr)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참여 후기를 통해 책에서 치유의 길을 발견하다

독서치료는 상황에 맞는 책읽기를 통해 상처의 근원을 인식하여 그 상처가 완화되거나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심리적·정서적인 문제를 통찰하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독서치료과정에서는 ‘사람들의 상한 감정’과 ‘아픈 마음’을 돌보아줄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인간 내면의 문제, 특히 상처를 인식하고 마음의 상처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어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치유서가 될 수 있다. 잘 선정된 치유서는 독자에게 ‘동일화’ - ‘카타르시스’ - ‘통찰’의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마음을 가볍게 한다. 이번 호에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했던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독서치료의 생생한 체험 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서치료 체험후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독서치료 참여후기 @@@ 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했어요. 어릴 적의 상처들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릴 적 상처 받은 나 자신의 모습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억눌려져 있던 자아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실을 향해서 훨씬 행복하고 생기있게 나아갈 것 같아요. 참 감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독서치료 참여후기 \$\$\$ 님

건강이, 체력이 좋지 못해 혼자 있었으면 헛되이, 부정적으로(왜 짜증만 나는지도 모르면서) 보냈을 시간들을 독서치료를 통해 인간으로서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존감 책들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서점 등 시중에 나와 있는 얇은 책들에서 느낄 수 없었던 내적 고민들을 독서치료 책에서 느낄 수 있어서 책 선정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독서치료를 통해 큰 성장보다는 저에 대한 발견, 인정, 수용하는 방법, 느낌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큰 성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독서치료 참여후기 ○○○ 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저 자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최근 수년 간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공격을 받고서 마음이 아파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들은 나에게 거침없이 감정을 표현하는 반면, 저는 언제나 무기력하게 당했기에 자존감이 낮았고 모든 문제가 저에게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저 스스로 피해의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독서치료를 통해 알게 된 가장 큰 발견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뒷전으로 두고 남의 감정과 생각에 휘둘렸던 것을 인식하게 되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불편'하기도 했지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좋은 '자아발견'의 기회였습니다.

독서치료 참여후기 ☆☆☆ 님

나는 독서치료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다. 이런 기분, 마음, 생각으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을 느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솔직한 마음을 글로 쓰고, 모임에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잔잔한 평화와 기쁨이 느껴졌다.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은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길에서, 내 삶에서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건 큰 도전이다. 나는 그런 도전이 꼭 필요하다. 그게 앞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적어도 불안에 떨거나 남 눈치보고만 살아가지 않는 길이다. 이 기쁨을 맛보고 나니, 다시는 과거처럼 살기 싫어졌다. 지금껏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애썼던 나 자신을 포기할 순간이

온 것이다. 과감히 도전하고, 포기하고, 내 지도를 채워가는 것에 고통이 따를 것임을 안다. 그걸 생각하면 행복하면서도 두렵다.

독서치료 참여후기 ♣♣♣ 님

각 주별로 가기 다른 상황에 따라 책을 읽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한 과제를 하는 동안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나를 괴롭혔다. 두 번째 주 내면아이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자라온 환경이나 성장과정의 잘못된 훈육으로 인해 그들도 상처입은 사람들이라는 이해가 생겼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부모도, 지금의 부모도 아니고, 성숙한 성인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치유의 책임이 부모에게서 나로 옮겨지며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셋째 주 자존감에 대해 다루는 시간에는 나의 낮은 자존감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영정 성장을 위해 해야될 것들,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또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제목처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나의 상태는 자각의 수준인 것 같다.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고, 더 꼬집어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서치료 참여후기 ◎◎◎ 님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다 이겨냈는데 뭐'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힘든 그 순간에는 그때가 가장 힘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마다 '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에서 박사나 마법사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내가 이전에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되새겨보고, 공주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는 2006년 2학기부터 교내 학부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하여 직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매년 1회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자의 자기존중감 향상 및 참여자 간의 지적·정서적 소통의 확대 등의 성과를 볼 수 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치유적 책읽기와 치유적 글쓰기, 치유적 말하기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및 대학생을 위한 주제별 독서목록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서치료 안내 및 상황별 독서치료목록 확인
 독서치료 프로그램 및 관련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 자료/시설 이용 → 독서치료/책읽는대학 → 독서치료 안내

독서치료 프로그램 문의
 제1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Tel. 051-510-1863



뮤지컬 100배 즐기기

책과 함께 만나는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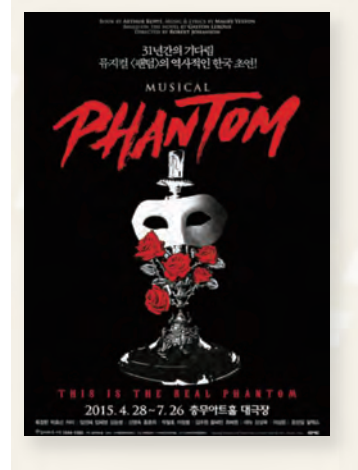
뮤지컬과 연극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계절입니다. 요즘 할인 혜택이 많아졌지만, 한 번 볼 때마다 나가는 돈이 커서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에게는 접근하기 힘든 취미생활입니다. 그만큼 작품을 고를 때는 더욱 더 신중을 기울여야겠죠? 이번에는 책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을 소개합니다. 뮤지컬을 보기 전 책을 읽고 간단히 작품에 대한 이해가 더욱 풍부해져 뮤지컬을 100배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제대로 한 번 해봅시다.



몬테크리스토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는 영국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다가 탈출, 복수에 성공한 한 남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왕정복고로 선화하던 프랑스의 현실적인 시대 상황과 이국적인 풍경,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한 스타일 넘치는 사건 전개, 인간의 희로애락을 녹여낸 절묘한 숨씨가 더해진 알렉상드르 뒤마의 원작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원작 소설이라고 합니다. 뮤지컬 <몬테크리스토>의 수록 넘버들은 웅장하고 화려해서 많은 뮤지컬 팬들이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몬테크리스토백작
알렉상드르 뒤마 지음
오중자 옮김
민음사 | 2002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43.8 D886c한)



팬텀
뮤지컬 <팬텀>은 가스통 르루의 소설 <오페라의 유령>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인데 오, 동일한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의 차이점은, <오페라의 유령>은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에릭과 크리스틴, 라울의 사랑과 삼각구도를 다룬 것에 반해, 뮤지컬 <팬텀>에서는 팬텀과 크리스틴의 이야기에 중점을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뮤지컬 <팬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같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오페라의 유령>과 얽힌 이야기들이 많네요. 한 번쯤 읽어보면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소설 <오페라의 유령>과 영화를 본 뒤 뮤지컬 <팬텀>을 관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원작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비교하면서 보면 더욱 재밌는 뮤지컬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오페라의 유령
가스통 르루 지음
성기수 옮김
문학세계사 | 2001
(제2도서관 2층 보존서고 LDM 843.9 L618한A)



도리안 그레이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는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원작으로 합니다. 1891년 발표된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은 귀족 청년 도리안이 초상화가 자신을 대신하여 늙을 수 있다면 영혼을 팔겠다고 맹세를 한 뒤, 그가 쾌락주의에 빠져들수록 초상화가 점점 추해져 결국 이를 통해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한 창작 뮤지컬이라 더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오스카 와일드 지음
베스트트렌스 옮김
더클래식 | 2012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23.8 W672pD한)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국내에서 초연으로 진행되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아이오와주의 한 마을에서 한적한 삶을 살고 있던 주부 프란체스카와 촬영차 마을을 찾은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작가 로버트 킨케이드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남녀의 사랑을 다루지만 결코 허락 될 수 없는 이야기로 애절한 사랑이야기로서 허를 내두르면서도 마음이아픈 내용입니다. 낯설고 위험한 소재를 감성적인 대화로 잘 풀어내며 이미 소설과 영화로 승혜교, 손예진, 유시민 등 배우와 작가들이 인생 영화로 꿈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로버트 제임스 월러 지음
공경희 옮김
시공사 | 2007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23.914 W198b한2)



페스트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프랑스 대문호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를 원작으로 하며 서태지의 주옥같은 음악을 넘버로 사용한 국내 창작 뮤지컬입니다. 국내에서는 서태지의 곡들을 편곡하여 뮤지컬에 사용하여 서태지가 편곡한 곡을 듣고 정말 대만족 했다고 합니다. 서태지의 곡으로 뮤지컬을 만든 만큼 화제성이 대단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조합이지만 노래 가사를 뮤지컬에 맞게 살짝씩 변형해서 내용과 노래에 괴리감은 없다고 합니다. 창작뮤지컬 겸 주크박스 뮤지컬이니 관람을 하신다면 기존의 라이선스 뮤지컬들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페스트
알베르 카뮈 지음
김화영 옮김
민음사 | 2011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43.912 C211p한G)

2016년 희망도서 신청통계로 알아본

효원인의 희망도서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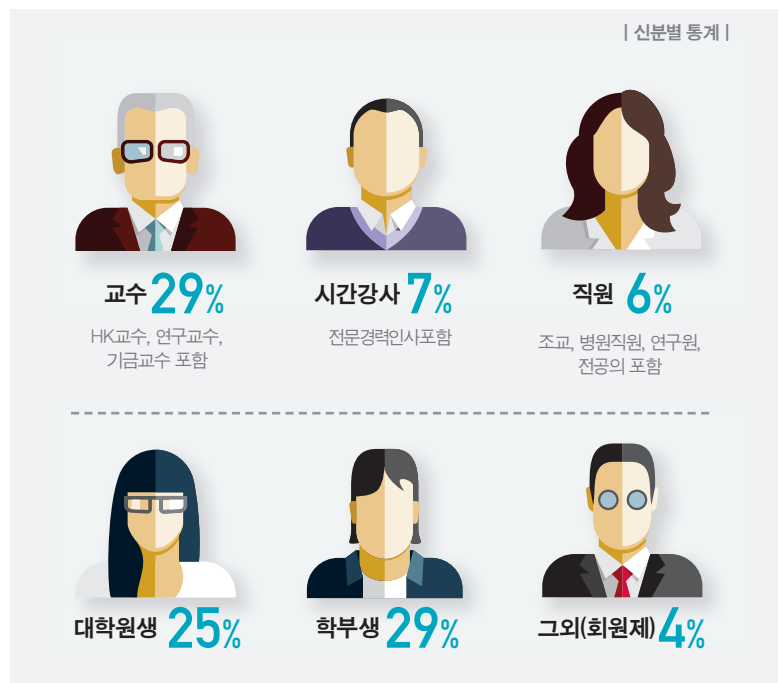
도서관에서는 현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희망도서 신청을 받아 구입 후 비치하는 희망도서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화나 청소년도서, 판타지/무협지/외설물 등 구입제한도서를 제외하고 교재, 교양도서 등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국내서 뿐만 아니라 서양서, 일본서, 중국서, 비도서와 전자책도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도서는 국내서를 기준으로 하여 신청 후 도서가 서가에 비치될 때 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서가에 비치되어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희망도서 신청자에게 SMS가 발송된다.

희망도서 신청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교내 구성원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자들도 많이 있다. 이번호에서는 2016년의 희망도서 신청통계를 통해 희망도서 신청제도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려고 한다.

희망도서 신분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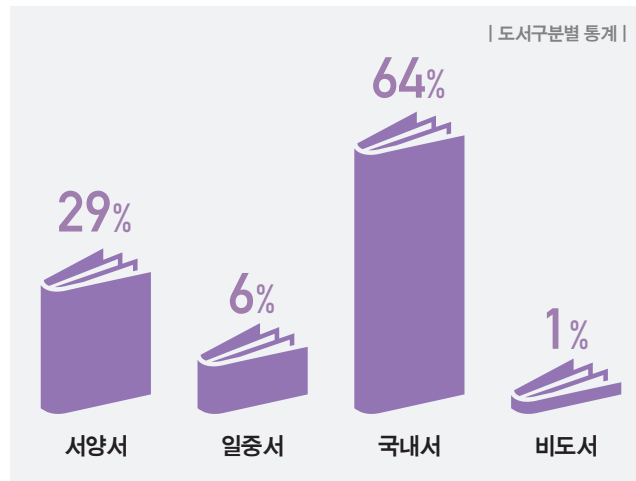
2016년 희망도서 신청통계를 살펴봤을 때, 희망도서 신청이 가장 많은 신분은 교수와 학부생으로, 각각 29%씩 차지했다. 대학원생도 25%로 희망도서를 많이 신청하고 있으며, 시간강사와 조교/병원직원/연구원 등의 직원도 각각 7%, 6%로 희망도서 신청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도서 신청이 많은 교수는 강의 또는 연구분야와 관련된 참고도서나 전문서적, 국외 원서 등을 주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부생은 신간도서나 취업관련도서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내 구성원 외에도 졸업생 중 연회비를 납부한 후 효원회원으로 등록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제 신분의 이용자들이 신청한 희망도서도 4%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도서를 희망도서 신청제도를 통해 구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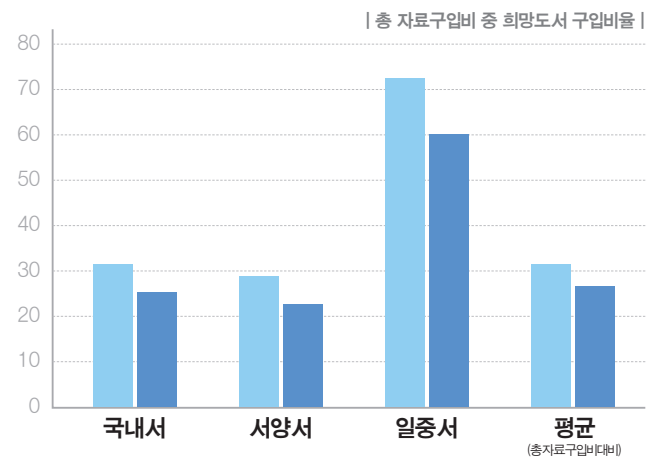
희망도서 도서구분별 통계

희망도서의 도서구분별 통계에서는 국내서가 6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양서 역시 29%로 희망도서의 1/3 가까이 되었는데, 이용자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내서를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공에 따라서는 일본어나 중국서 등의 동양서 원서를 신청하는 이용자도 있어, 다양한 종류의 희망도서가 신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들어서는 영화나 방송 다큐멘터리 DVD 자료들의 신청률이 늘고 있어, 도서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6년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2017년부터는 e-book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하여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좋을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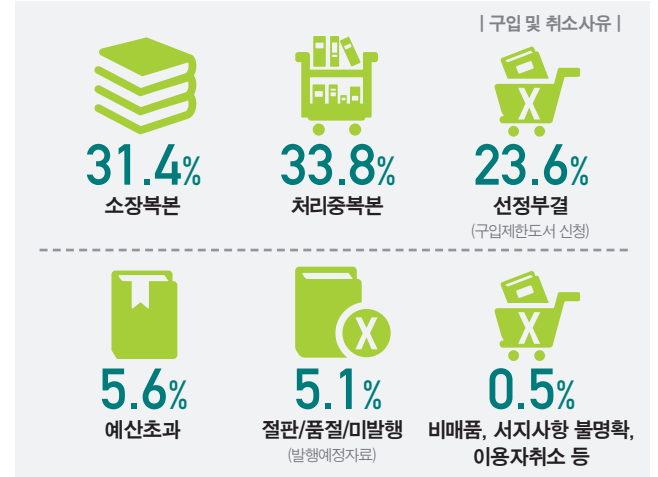
2015-2016년 총 자료구입비 중 희망도서 구입비율

2015-2016년의 총 자료구입비 중 희망도서의 구입비율을 살펴봤을 때, 2015년에 비해서는 2016년의 희망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구입하는 부서인 자료개발팀과 각 주제자료관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를 먼저 파악하여 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미리 구입하여 비치하였기 때문에 희망도서의 비율이 총 자료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양 관련 신간자료 또는 취업관련도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서의 경우, 담당자 우선 선정으로 이용자가 희망도서를 신청하기 이전에 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희망도서의 비율이 10% 가까이 낮아졌다. 일중서는 국내서나 서양서에 비해 희망도서 구입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이 역시 주제자료관에서의 자료선정 및 구입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전년대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희망도서 구입 및 취소사유

이용자가 직접 신청한 희망도서는 도서관의 자료선정지침에 따른 구입제한도서를 제외하고 선정 및 구입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희망도서가 중복으로 신청되었다거나 이미 다른 사람이 신청하여 구입이 진행되고 있는 도서를 신청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구입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긴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장복본 및 처리중복본으로 65% 넘게 차지한다. 소장복본은 이미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을 이용자들이 신청하는 경우이며 처리중복본은 앞서 설명했듯이 다른 사람이 신청하여 구입이 진행중이거나 구입이 완료되어 등록 및 정리중인 경우를 말한다. 이는 이용자들이 자료를 신청하기 전 도서관의 자료선정 담당부서에서 먼저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을 먼저 진행한 것이다. 그 외에도 만화나 판타지/로맨스/무협지, 또는 외설물 등을 신청하여 선정이 부결된 경우가 약 24%, 희망도서의 신청이 너무 많아 신분별 상한금액을 넘어 취소되는 경우가 약 6% 정도 발생한다. 또한 주문을 진행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절판/품질된 경우, 또는 아직 발행되기 전인 자료라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도서관의 희망도서 신청제도는 이용자의 자료요구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로, 희망도서의 신속한 입수를 위해 한주에 1~2회 이용자의 희망도서를 선정하여 주문하고 적시에 자료를 제공하고 노력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내서 입수 소요일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고, 특히 교양 관련 신간자료는 주제관 및 자료선정 담당자의 우선선정을 통해 희망도서를 신청하기 전에 구입·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희망도서 신청방법** 희망도서 신청 및 신청확인용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관 홈페이지 → My Library → 자료 신청/조회 → 희망도서
- 희망도서 이용문의**
· 인문사회계열(인문, 사회, 법학 포함) : 교내 1803
· 과학기술계열(의학, 나노 포함), 예술계열 : 교내 1399

여름, 그리고 방학을 함께 보내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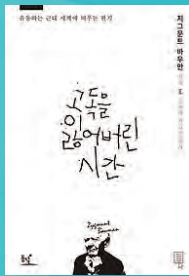
어느새 성큼 다가온 여름 그리고 방학! 누군가는 멋진 휴가를 계획하고 있을 테지만 또 누군가는 변함없이 바쁜 일상을 보낼 뜨거운 여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여행지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도시에서 혹은 내 방에서 책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만끽해 보는 건 어떨까. 스트레스도 날리고 더위도 잊게 해줄 책들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한여름의 방정식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이혁재 옮김 | 재인 | 2014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13.36 동62ㄹC한)
미스터리적 제왕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과 함께 더위를 날려버릴 오싹하고 스틸 있는 추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여름 방학을 맞아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고모네로 놀러 가던 초등학생 교헤이는 기차 안에서 같은 곳으로 가던 탐정 갈릴레오와 우연히 알게 된다. 교헤이는 그에게 고모네 여관을 소개하고 그는 그곳에서 며칠을 묵기로 한다. 두 사람이 여관에 온 다음 날, 또 한 사람의 투숙객인 쓰카하라 마사쓰구가 항구 근처 바위에서 번사체로 발견되고 탐정 갈릴레오는 16년 전 일어난 한 살인 사건의 진상과 맞닥뜨린다. 그리고 여관 가족이 숨겨야만 했던 중대한 비밀에 한 걸음씩 다가 가는데…….



클릭, 서양미술사
캐롤 스트랙랜드 지음 | 김효경 옮김 | 예경 | 2010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ADM 709 S917a한2)
멀리 가는 휴가가 부담스럽다면 조용하고 시원한 미술관에 가보자. 가볍게 미술사에 대한 지식도 얻고 간단면 좀 더 유익하게 미술관에서의 여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선사시대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미술사를 일관성을 유지한 채 서술하는 한편, 각각의 작품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실험적인 비교 고찰을 통해 미술가와 작품, 미술 사조를 조망했다. 방대한 미술사의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한 빼곡한 텍스트보다는 화보집을 보는 듯 시원시원하고 큰 도판으로 채웠으며 미술사에 있어 중요한 핵심만을 명쾌하게 서술했다. 또한 최근의 경향을 분석한 현대미술 부분 수록은 이 책만이 가진 강점이다. 독자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으면서도 통합적으로 미술사를 조명하고 깊이 이해하기에 좋은 책이다.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 조은평, 강지은 옮김 | 동녘 | 2012
(제1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303.4 B347f한)
복잡하고 빠른 세상에서 잠시 물러나 휴가철에 진정한 '고독'을 누려보기에 좋은 책. 한 달 동안 무려 300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10대 소녀, 카드대금을 또 다른 신용 카드로 돌려막는 대학생, 외모 개선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은 여성들, 질병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는 제약회사, 회사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해고되는 노동자들, 낯선 사람들을 피해 '외부인 출입 제한 주택지'라는 거대한 담을 쌓고 살지만 항상 그 안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피로한가? 이 책은 고독, 세대 간의 대화, 온라인과 오프라인, 트위터, 프라이버시, 소비, 자유에 대한 변화하는 개념, 유행, 소비지상주의, 건강 불평등, 신중 플루, 예측불가능한 일과 예측불가능하지 않은 일들, 공포증, 운명과 성격, 불황의 끝 등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침체하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젯거리를 다루고 있다. 바우만은 그 이슈들의 의미를 짚고, 오늘이 어떤 미래를 빚어낼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띄우는 편지 형식으로 들려준다.



여행의 심리학 : 유쾌한 심리학자의 기발한 여행안내서
김명철 지음 | 어크로스 | 2016
(제1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910.4 김34ㅇ)
여행에 가면 왜 꼭 싸우고 돌아올까? 역마살의 정체부터 여행 동료와 싸우지 않는 법까지, 휴가를 앞둔 이들을 위한 후회 없는 여행을 위한 안내서. '여행만 같이 갔다 하면 친구를 잃는다', '첫 여행으로 패키지여행이 좋을까 자유여행이 좋을까', '여행의 행복은 얼마나 갈까', '혼자 떠난 여행에서 가지 말아야 할 곳', '성격 따라 숙소 고르는 법도 달라진다', '왜들 그렇게 여행이 좋다는 걸까', '라면을 꼭 싸야 할까, 싸아야 한다면 얼마나 가져가면 좋을까' 등 여행에 관해 한 번쯤 물어봤던 질문들을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파고든다. 이 책이 던지는 여행에 관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와 여행 유형을 탐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행 불만족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행을 결심하게 하거나 여행을 풍요롭게 해주는 날씨와 음식, 풍경과 숙소에 대한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며 이상적인 여행의 모습을 그려본다. '인생여행' 준비에 좋은 지침서가 될 책이다.



높기의 기술 : 수평적 삶을 위한 가이드북
베르트 브루너 지음 | 유영미 옮김 | 협암사 | 2015
(제1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392.3 B897k한)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 시간. 우리의 높기에 역사적 변명거리를 제공해주는 유쾌한 책.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누워서 지낸다. 누워서 자고 꿈꾸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고통 받고 회복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 모든 행동을 습관적으로 변명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평 자세는 게으름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높기의 기술』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경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높기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화사적으로 고찰한 책이다. 저자는 인간에게 있어 수평 자세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역사는 물론, 철학, 문학, 과학, 인문학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지적인 탐색을 거듭한다. 석기시대 사람의 잠자리, 7만 7천 년 전의 수면에 혁명을 일으킨 매트리스 발명의 역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침대, 수면 연구에 대한 최신 인식 등 인류 탄생 이후부터 이어진 다양한 높기에 대한 유쾌한 읽을거리가 가득하다.



세계사 브런치 : 원전을 곁들인 맛있는 인문학
정시은 지음 | 부키 | 2015
(제1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909 정59스)
지루하지 않고 쉽게, 재밌게, 책을 통해 세계를 여행하고 역사도 배울 수 있는 책. 『세계사 브런치』는 인류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27가지 명장면을 불멸의 고전으로 생생하게 전한다. "역사는 재미있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증명하고자 기획된 이 책은, 도표나 연표식 정리 같은 지루한 통사식 서술을 지양하고,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의 《역사》, 로마사의 으뜸이라 할 만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 중국 고대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사마천의 《사기》, 혁명의 건박감을 생생히 펼쳐 보이는 칼라일의 《프랑스 혁명사》 등 45권의 역사 고전에서 가려 뽑은 글들을 소개한다. 역사 속 결정적 장면을 때로는 장엄하게 때로는 섬세하게 묘사하고, 어지러운 사건과 인물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핵심을 단번에 짚는 통찰력이 돋보이는 대목들이 영어 텍스트와 함께 제공한다.



일은 소설에 맡기고 휴가를 떠나요
엘리스 머로 외 지음 | 강경이 외 옮김 | 흥시 | 2015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08.8383 B658f한A)
세계적인 작가들이 보내는 인생이라는 일에 대한 위로와 감동. 이 책과 함께 일상은 잠시 소설에 맡기고 진정을 휴가를 떠나보자. 2013년 노벨문학상 수상 엘리스 머로부터 '작가들의 작가' 제임스 셉터 까지 세계적인 소설가 32인의 인생이라는 일에 관한 소설 32편이 담긴 작가들의 대표 작품 선집이다. 문학에서 위안과 감동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진정한 위로와 감동을 주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시에 출근하고 일을 끝내야 하며 일거리를 집에 가져가고 어떻게든 고용되어야 하며, 때로는 해고되고 승진하거나 좌천당하며, 구조조정 당해 집에 보내지고, 때로는 언더리가 나서 보따리를 쌀 준비를 하지만 돈벌이를 해야 하는 복잡하고 곤혹스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소설가들은 인생의 선배 혹은 친구처럼 독자들을 위로한다.



한국이 싫어서
장강명 지음 | 민음사 | 2015
(제1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11.36 정11ㅎA)
시원하고 명쾌하게 한국사회를 꼬집어주는 책. 스팩전쟁, 취업전쟁으로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쉬어가지.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 계나는 종합금융회사 신용카드팀 승인실에서 꾸역꾸역 근무하던 중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출퇴근의 지옥철은 더더욱 참지 못한 나머지 사표를 제출한다. 말리는 가족과 눈물로 호소하는 남자 친구, 비아냥거리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호주로 떠난 계나. 호주에서 크고 작은 위기들을 극복하며 어학원을 수료한 뒤 회계학 대학원에 입학해 안정을 찾아 가던 계나는 남자 친구였던 지명으로부터 청혼에 가까운 고백을 받는다. 두 달 동안의 방학을 그와 함께 한국에서 보내게 된 계나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은 남자 친구와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아파트까지, 많은 것이 갖추어진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호주행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 출국이 한국이 싫어서 떠난 도피의 길이었다면 두 번째 출국은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한 도전의 길. 계나는 점차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에 가까워진다.



철학의 위안
알랭 드 보통 지음 | 정명진 옮김 | 청미래 | 2012
(제1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101 D287c한A)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멘탈 강화 훈련을 위한 책. 알랭 드 보통이 불안한 존재들에게 전하는 행복과 위안의 철학. '일상성의 발명가' 알랭 드 보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범한 철학자 6명, 즉 소크라테스, 에피쿠로스, 세네카, 몽테뉴, 쇼펜하우어, 니체의 생애와 생각을 정리하여 자신의 인생론을 펼쳤다. 드 보통은 이 철학자들을 통해서 철학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대답을 찾고자 했다. 그 답은 불안한 존재들인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용기, 우정, 순명(順命), 사랑, 고통의 승화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철학자들의 지혜를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고 나아가 행복과 위안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제시 한다.



봄날의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

올해도 어김없이 새학기가 시작되고 파릇파릇한 봄날의 새내기들로 캠퍼스가 북적대고 있네요. 1년 중에서 가장 활기차고 상큼한 계절이 바로 봄이 아닌가 하는데요, 봄날의 캠퍼스는 더할 나위 없이 설레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새로운 대학생활을, 기존의 재학생들에게는 기나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다시 맞이하는 봄날의 캠퍼스를 선물해주는 영화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의 영화는 제1·2도서관 1층 iCOMMONS 내 미디어룸에서 언제든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족구왕

개요 드라마 | 104분 | 2014.8.
감독 우문기
출연 안재홍(홍만섭 역), 황승언(안나 역), 정우식(강민 역) 등
내용 허세 0%, 혈중 열정농도 100%의 슈퍼학생인 홍만섭이 불러온 족구열풍! 누가 봐도 허술해보이는 외인구단 만섭팀은 사랑과 족구 모두를 정취할 수 있을까?
한줄평 끝까지 유머를 잃지않는 용기(김성훈 씨네21 기자)



굿윌헌팅

개요 드라마 | 126분 | 1998.3.
감독 구스반 산트
출연 맷 데이먼(윌 헌팅 역), 로빈 윌리엄스(손 맥과이어 역) 등
내용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불우한 반항아 윌이 심리학교수 손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변화하는 이야기
수상 제70회 아카데미시상식 각본상(맷데이먼/벤애플렉, 1998년) 등



건축학개론

개요 로맨스 | 118분 | 2012.3.
감독 이용주
출연 엄태웅(현재 승민 역), 한가인(현재 서연 역) 등
내용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그녀를 처음 만나고, 15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났다. 두사람 사이에 새로운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한줄평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김형석 영화 저널리스트)



클래식

개요 멜로/로맨스 | 132분 | 2003.1.
감독 박재용
출연 손예진(지혜/주희 역), 조승우(준하 역), 조인성(상민 역) 등
내용 편지를 대신 써주며 사랑이 깊어간 엄마와 자신의 묘하게도 닮은 첫사랑. 추억을 나르는 순백의 로맨스, 언제나 사랑은 우연을 가장하고 찾아온다!
수상 제40회 대중상영화제 신인여우상(손예진, 2003년) 등



세 얼간이

개요 코미디 | 171분 | 2011.8.
감독 라자구마르 하라니
출연 아미르 칸(람초 역), 마드허반(파르한 역), 서먼 조쉬(라주 역) 등
내용 천재들만 간다는 일류명문대 ICE에서 친구의 이름으로 뭉친 세 얼간이! 뼈뚫한 천재들의 진정한 꿈을 찾기 위한 세상 뒤집기 한판이 시작된다!
한줄평 보다 나은 인생에 관한 낭만(허지웅 칼럼니스트)



몬스터대학교

개요 애니메이션 | 110분 | 2013.9.
감독 박재용
출연 빌리 크리스탈(마이크 목소리), 존 굿맨(설리 목소리) 등
내용 이론만 빠삭한 '열공몬스터' 마이크와 무늬만 엄청난 '허세몬스터' 설리, 과연 이들은 최악의 라이벌에서 최강의 콤비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한줄평 오랜 친구와 수다 떠는 편안함(박혜은 맥스무비 편집장)

그 외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

장르 | 러닝타임 | 개봉년월 | 감독

오버 더 레인보우

드라마 | 109분 | 2002.5. | 안진우

금발이 너무해

드라마 | 97분 | 2001.10. | 로버트 루케틱

엽기적인 그녀

코미디 | 122분 | 2001.7. | 박재용

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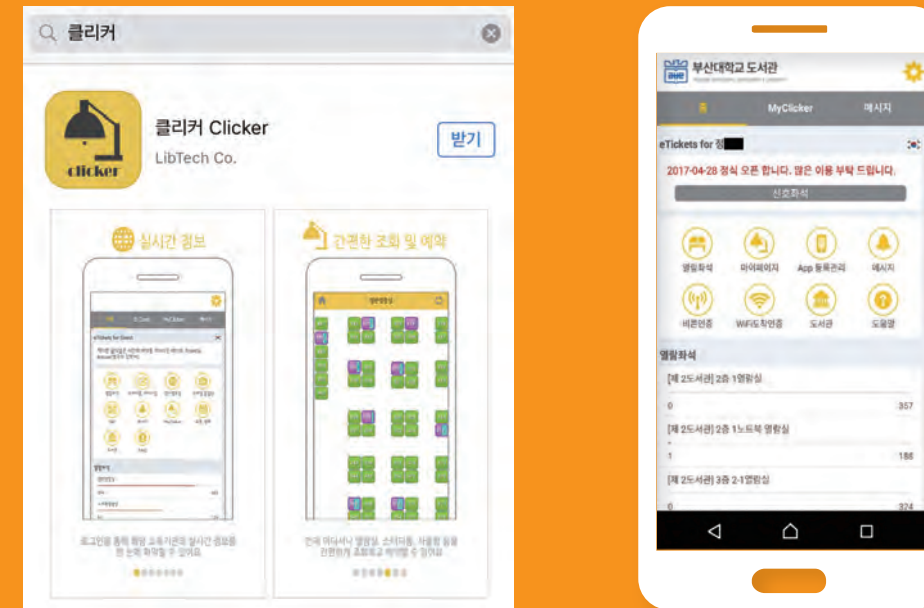
드라마 | 115분 | 2015.3. | 이병헌

도서관 이용을 앱으로 편리하게



01 모바일 이용증이 도서관 앱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모바일 이용증 앱이 도서관 앱으로 통합되어 좀더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산대 도서관 앱을 업데이트 하신 후 이용해주세요!!



02 열람실 좌석배정을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보다 편리한 열람실 이용을 위해 모바일 앱 방식의 열람실 좌석배정시스템을 오픈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클릭커"를 설치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도서관 앱 또는 열람실 좌석배정 앱 이용 중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Board) 또는 댓글남기기를 통해 의견을 주세요. 문의 | 도서관 앱 - 051-510-1817, 열람실 좌석배정 앱 - 051-510-1832

시선집중

정세균 국회의장 부산대학교 도서관 방문



지난 2월, 정세균 국회의장이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방문하여 주요 시설 및 전시장을 둘러보고 학생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017년 2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부산대학교 경암체육관에서 열린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부산대 명예공공정책학박사 학위'를 받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학위수여식이 끝난 후 11시경 제1도서관에 방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층 복합문화공간의 양쪽 기둥 서가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시코너와 '효원감동나눔 네 번째 이야기'를 관람한 후 2층의 지도자료실로 이동하여 대동여지도 및 목장지도 실물자료를 열람했다. 특히 정 의장은 대동여지도 원본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지도를 펼쳐 고항의 옛 지명 및 위치를 직접 찾아보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3층 북카페로 이동하여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학교생활, 취업 관련 상담 등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질문을 아끼던 학생들은 시간이 차츰 지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질문을 하기도 했으며, 이후 기념품 증정 및 단체 기념촬영으로 행사가 종료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부산대학교 도서관 방문을 마치며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크고 많은 인제가 배출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남겼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전자자료, 어디까지 알고 있니?

2017 도서관 전자자료 이용박람회 개최



도서관에서는 전자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7 도서관 전자자료 이용박람회'를 개최하였다. 2014년부터 매년 1회씩 진행해오던 이 행사는 지난 4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부산대학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총 21개의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전자자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용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전자정보 활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스탬프이벤트, 정보검색이벤트, 설문조사 및 이용후기 이벤트 등 3개의 이벤트를 마련하였으며, 올해는 박람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박람회 개최 일주일 전부터 『미리 참여하는 정보검색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는 아이패드 에어, 갤럭시 기어, LG TV겸용 모니터,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였으며, 박람회를 통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전자자료에 대한 안내와 업체별 전자자료의 시연 및 체험 등 이용자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전자정보의 활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800여명의 이용자들은 몰랐던 전자자료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좋았으며 익숙하지 않았던 전자자료의 이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만족함을 표현했다. 도서관에서는 이번 박람회에 대한 만족도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좀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전자정보 이용박람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도서관 자료개발팀 051-510-1804

Special Focus

제2도서관 남쪽 출입구 개방



이 어려웠으며, 특히 제1도서관 및 법학관 등 남쪽에서 내려오는 이용자들의 도서관 출입 동선이 불편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서관에서는 제2도서관의 남쪽 출입구를 개방하여 편리한 도서관 출입 및 도로 보행·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남쪽 출입구가 개방되면서 도서관 출입구 분산에 따른 편리하고 안전한 도서관 출입 및 동선이 개선되었으며, 공사 차량 및 교직원의 출퇴근 차량의 원활한 운행으로 도로 보행 및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수 있었다. 출입구 무인관리에 따른 보안문제는 CCTV 설치 및 경비실과의 인터폰 연결 등을 통해 보완하였으며, 남문 옆에 설치된 기존의 오토바이 주차 공간 활용을 통하여 기존의 제2도서관 앞 공간이 오토바이 주차로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남쪽 출입구 앞에 설치된 진로·취업상담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쪽 출입구는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하며, 모바일이용증 또는 스마트학생증으로 출입할 수 있다.

문의 | 도서관 정보서비스팀 051-510-1308

가정교육학과 71학번 동문, 추억의 캠퍼스와 도서관 방문



지난 4월 28일(금)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71학번 동문 18명이 캠퍼스와 도서관을 방문하여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문들은 도서관 투어를 위해 제1도서관을 방문하여 3층 도서관장실에서 이상금 도서관장과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누는 후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대한 연혁과 주제관별 배치, 특징 등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이후에는 제1도서관 3층의 고문헌자료실에 방문하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귀중본 및 문화재 자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보물로 지정된 목장지도의 영인본 자료를 확인한 후 도서관 소식지에 실린 기증관련 기사를 주의깊게 읽어보기도 하였다. 이상금 도서관장은 앞으로 좀더 많은 부산대학교 동문들이 부담없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시설과 자료를 둘러보고 캠퍼스의 추억을 되살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지난 2012년 리모델링으로 문을 닫았던 제2도서관의 남쪽 출입구를 1월 20일부터 다시 개방했다. 그동안 제2도서관 정문 앞의 무분별한 오토바이 주차로 인하여 도서관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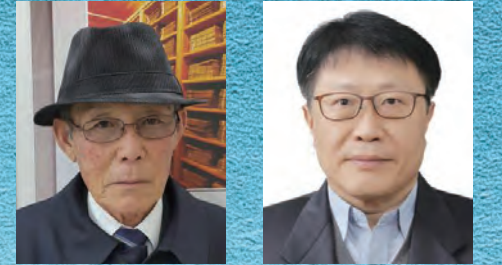
[도서관 후원]

고맙습니다!
기증해 주신 자료는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설미 탐진안씨 문중, 부산대 도서관에 고문헌 192점 기증, 조선시대 경제와 사회상 연구에 도움 기대

2017년 4월, 경남 의령군 설미 탐진안씨 문중에서 집안 대대로 전해온 고문헌 192점(의령 거주 안명달 씨 177점, 울산 거주 안호중 씨 15점)을 우리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탐진안씨 문중에서는 1989년 9월, 고문헌 2,503점을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자료를 기증해왔으며, 이번에 기증받은 고문헌은 조선 후기 학자인 안덕문의 시문집 등 고서 115책과 임진왜란 때 홍의장군 광재우의 휘하에서 공을 세운 안기종의 교지(敎旨)를 포함한 고문서 52점, 백산 안희재 선생이 독서에 열중하던 율리재(栗里齋) 등의 헌판 25점으로 조선시대의 경제와 사회상 등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명달 씨가 기증한 고문헌 177점 중 103점은 2015년 10월 의령군 소재 의령박물관에 기탁하였다가 이번에 반환받아 기증한 것이다. 안명달 씨는 부산대 도서관에서 문화재를 발굴하여 지정(설미탐진안씨분재기,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 177호, 2016.11.23.)받게 하는 등의 노력이 돋보였으며, 선조들의 귀중한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후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명달 씨

안호중 씨



도서관에 자료기증을 원하세요?

여러분께서 기증해주시는 책은 모두의 자산이 되며,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됩니다.
도서관 자료개발팀 | 051-510-7600 도서관 고문헌자료실 051-510-1824(고문헌 관련)